성령의 임재는 과학이다

(고전12:1~3)

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TV에서 하는 침대 광고 중에 그런 문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침대는 과학이다'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옛날의 종교의 의미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 안에 정치가 있고, 종교 안에 교육이 있고, 종교 안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삶 자체였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다'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의 임재는 종교현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 식물학 정원이라는 게 있나 봐요,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식물학 정원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1665년과 1666년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 캠브리지 대학이 문을 닫습니다.
그때 대학에 연구원으로 있던 아이작 뉴턴이 고향 시골에 내려가서 2년 동안을 지나게 되는데, 이 2년을 사람들은 '기적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기적의 해냐?

이렇게 연구실에서가 아닌 연구실을 떠나 고향에 내려가서 한가하게 지내는 동안에, 뉴턴이 인류사회에 남을 위대한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빛이 프리즘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광학이론, 그전에는 빛은 그냥 하얀색이라고 봤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운동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게 중력의 발견이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체계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과나무는 1800년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만에 죽은 거지요.
근데 그 사과나무의 후손 격이 되는 나무가 바로 캠브리지 대학의 식물학 정원에 지금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력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발견한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도 감탄을 금할 길이 없고, 그 발견된 중력이라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야말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진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것은,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지구에서 정반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는 방향이 거꾸로 인 셈입니다.
소위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낌 안에서 느끼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볼 때 아르헨티나의 사과나무는,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말이 맞지를 않지요.
아! 이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과나무도 지구 중심을 향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과나무도 지구 중심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잡아당겨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력이라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고 잡아당기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 우주에는 아래와 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은, 끌려서 발이 땅바닥에 닿아있는 것이지, 내가 내려와서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 솟구치는 힘을 이기면서 아래로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끌려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와서 지구 표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끌려가는 힘, 지구의 중심으로 끌려가는 힘, 이 땅의 중심으로 끌려가는 이 힘, 중력.
성령이 임재하시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뉴턴의 과학적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 억, 수 십 억의 모든 사람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고 본 거에요.
그런데 이 뉴턴만이 사과가 끌려간다고 본 겁니다.
지구의 중심부로 끌려간다고 본 거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내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중력의 발견입니다, 중력의 발견.
끌려가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중력을 보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끌려가고 있다는 중력을 발견한 그 시점에서 1600년 전에, 사도바울이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의 중력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의 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중력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보이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지구의 중력으로 보이면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현상으로 보이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담긴 편지 중 또 하나의 문제로서 기록된 것이 은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하는 분파는 각자가 교만해짐으로써,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깃발 아볼로라는 깃발 바울이라는 깃발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내 건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내일 하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신령한 것들, 오늘 본문에 신령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신령한 것들인 은사를 받은 자들끼리, 서로 누구의 은사가 더 우월한 것이냐를 경쟁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각양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은사가 누구께 더 좋은 것이냐, 어떤 은사가 훌륭한 것이냐, 더 월등한 것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냐 안 하고 있는 것이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 분별하는 은사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진짜 악령에 의해서도 방언이 말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악령, 귀신이 들어와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기행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냐 아니냐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오늘 본문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저주 받을 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임재하지 않음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성령이 임재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임재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달린 주님이 주님이 아니라 저주 받을 자라고 본다는 겁니다.
저주 받을 자라고 본다는 것은, 나와 거리가 멀고 내가 가능한 한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이고.
근데 이 얘기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이야기 이면서도 동시에,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자체가 로마시대, 황제 숭배가 법처럼 지배적으로 인가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각오하는 결단이어야 되기도 했지만, 그런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내면적 차원에서라도 벌써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감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절의 말씀이 반드시 같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2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번역하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고 있을 때에, 너희 마음이 끌릴 때’
이게 지금 직역하는 겁니다, 헬라어를.
‘마음이 끌릴 때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느니라’
벌써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임재 함으로만 보일 수 있는 과학적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우리 마음이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을 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집을 소원하지 않고 좋은 차를 소원합니다.
집은 월세로 살아도 좋고 전세로 살아도 좋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소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작품을 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
소원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자발적으로 갖게 되는 소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자라온 배경과 모든 것에 의해서, 서로 다른 점이 다른 소원을 갖게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보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그 동안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 뉴턴의 눈에는 끌려가는 것으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삶 속에서 내가 소원을 갖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자발적으로 꿈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소원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성령이 임재하면서 눈에 띈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소원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고, 사로잡힌 것이고 노예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몸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마음이 이 지구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 끌려갔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아무리 그게 거룩한 뜻이고 좋아 보이는 뜻이

라도, 위대한 뜻이라도, 그런 소원을 갖고 뜻을 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갖는 소원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것이고 끌려가는 것이고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임재 할 때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면적인 중력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보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과학입니다.
중력을 보는 거예요, 중력을.
이렇게 성령이 임재해서 중력을 못 보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가 소원하고 비전을 갖고 꿈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소원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다른 사람과는 다른 꿈을 갖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가장 멀리해야 될 저주받은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내가 갖는 소원, 내가 갖는 꿈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능동적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한 그런 비전과 꿈과 소원이 아니라, 사실은 노예화되고 있는 끌림이라고 하는, 이 중력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보입니까?
이 지구 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만, 내면적 지구 위의 중력이 끊어진다는 걸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에게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만, 그럴 때에만, 내 마음이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가치들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뉴턴이 본 중력의 근원은 지구의 중심부입니다, 지구의 중심부를 향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끌려가는 겁니까?
세상의 중력, 내면적 중력의 중심부에는 마귀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돈을 벌 만한 것으로, 명예를 얻을 만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이룰 꿈과 비전을 갖고 싶어 할 만 한 것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끌어당기는 마귀의 힘의 방향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라도, 그게 가족이라도, 그게 아내이고 남편이라도, 아내를 좋아하고 남편을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편에게 끌리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자식 배후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과 반대방향으로 내 마음을 끌어가고 있는 중력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이 생기고, 내 마음에 욕구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이 세상 것인 한, 이것이 지금 내가 돈을 갖고 싶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돈 배후에서 하나님과 반대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마귀의 힘이요, 마귀의 중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중력이, 세상의 중력이 끊어진 자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갖고 싶고, 그것을 꿈으로 꾸고 비전으로 꾸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좋은 예배당, 많은 숫자의 교회를 꿈꾸는 것도 역시 마귀의 중력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예배당이 큰 것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소원은, 내가 자발적으로 갖는 소원이 아니라, 마귀가 끌어당기는 악마적인 중력에 끌려가는 것이고, 목사님인데도 이걸 못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는데, 아차! 지금 교회 숫자라고 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미끼삼아서 마귀가 나를 잡아끌고 있구나!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세상의 중력을 볼 수 없다면, 이런 과학적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면의 세계의 과학적인 지식, 세계관, 시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이 세상의 소원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오래 살게 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이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끌려지는 대로 끌려갔다' 어디로? 우상에게로.
내가 이 세상 것을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상화해버린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미끼삼아서 마귀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

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중력에 끌려가면서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주'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는 십자가와 반대편에 서있는 부귀영화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을 소원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님, 주님 한다고 그래서 다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이 마귀의 중력이 끊어지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만 진정으로 소망을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와 힘과 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중력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 안으로 가득히 들어오시기를 진정으로 참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만이 참 소망이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하게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바른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른 소망.
소망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사는 척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소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비전이고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꿈과 비전은 세상 중력이 끝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이 세상 중력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 중력이 끊어지고, 아니면 십자가 밖에서는 내가 좋아하고 소원하고 꿈꾸고 비전으로 갖는 모든 것이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마귀의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보는 것,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것임을 알게 되고,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중력이 십자가에서만 끊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시간마다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면서, 참 소원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중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현대세계에서처럼 하나의 섹트(sect)화 된 문화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참 과학적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중력을 보게 하시고, 중력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